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독성연구팀 연구위원 / **임 경 택**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에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리 사회가, 근로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다시 한 해의 시작점에 섰다.

필자가 우리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을 때 공단 홍보동영상에서 감명 깊게 느꼈던 문구가 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필자의 마음에 우리 공단의 일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문구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빛의 따스함과 밝음도 내 생명, 내 건강이 온전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 근로자들도 각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는 내 직장, 내 일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12년 산업재해 분석(KOSHANET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742명)하였고, 재해율은 0.59%이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는 매일 발생하기에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을 뿐이지, 실은 자연재해보다 더 거대한 재해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부터 나와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산업재해와

자연재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자연재해와 달리 주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실제 산업현장에 가보면 매일 하는 일이라고 얕잡아 보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간단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18년에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며, 향후 60년 안에 평균수명 120세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의 체력과 작업수행능력이 향상되면, 현재 60세 안팎에 은퇴하는 관행이 미래에는 80세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생 중 60년 가까이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30~35년 정도 노동하는 경우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일' 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일하다 그만큼 재해를 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말이 된다. 오래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다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먼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1912년 4월 14일 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언했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은 처녀항해를 나간 지 불과 4일 후, 빙산과의 충돌로 2시간 40분 만에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이 사고로 승선자 2,308명 중 1,513명이 희생되었고, 해운사상 최대의 해난사고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하다 호언했던 타이타닉은 왜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것일까? 그것은 거대한 배의 크기에 비해 불량했던 강판, 빙산 출현에 대한 경고 무시, 배의 안전성만을 믿은 선장이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항해한 것 등의 작은 부주의들이 모여 생긴 결과였다. 타이타닉 침몰이라는 비극적인 사고는 다음해 SOLAS(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런던에서 처음 열리게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선박안전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까지 해양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작은 부주의로 발생한 대참사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대책, 나아가서 항해술과 철강 산업의 발전까지 이루게 해주었다. 대재해로 인해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각종 안전대책이 수립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타이타닉과 함께 쓸쓸이 사라져간 수많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슬픔과 고통은 과연 누가 치유해줄 수 있을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 사고는 절대 뜬금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H.W.하인리히가 각종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는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게 되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따라서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각종 작은 사고들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면 더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사람은 가끔 그릇이 작은 사람으로 취급되곤 한다. 하지만 위험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 세심하게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는 만큼 위험사회에서 한걸음 더 멀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의 태양은 내일 또 다시 떠오르지만 우리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은 다시 태어날 수 없기에……. ☙